

러시아 정부의 노동정책, 1881-1904*

이 체 옥**

1. 서론

러시아는 1861년 농노개혁 이후 불과 45년만에 혁명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12년 뒤인 1917년에는 전제정 자체의 붕괴 및 인류사 최초의 사회주의 체제의 등장을 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노동계급은 이 격동의 과정에서 주역을 담당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동질적인’ 계급의식, 다시 말해서 혁명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소련학계는 일반적으로 근대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과 혁명 의식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서방학계는 여러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농민의 반란적 전통과 사회주의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농민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적인 두 시각은 러시아 노동계급이 도시화, 숙련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경험과 의식수준을 지닌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 필자가 보기에 그 다양한 노동자 집단을 하나의 계급으로 묶어준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처한 철저한 무권리적 상황이었다.

짜르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러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사실 농

* 이 논문은 이체옥(1997)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산업화와 ‘혁명적’ 노동계급의 형성」,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까치, 제4장 “노동의 저항과 정부의 대응”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1) 기존 연구의 입장과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한 연구로는 R. Zelnik(1970) "Russian Workers and the Revolutionary Movement,"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6, No. 2, pp. 214-237을, 노동자 집단의 다양한 구성 및 분화를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으로는 V. E. Bonnell ed.(1983) *The Russian Worker. Life and Labor under the Tsarist Regime*, Berkeley, pp. 1-18을, 이들 문제를 정리한 국내 연구로는 이체옥(1997), 448-466쪽을 각각 참조할 것.

업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산업구조로서, 저생산성의 악순환에 빠져 있던 러시아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노동조건을 면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²⁾ 하지만 산업화 초기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유례없는 혁명성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행동 일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태도 탓이었다. 그에 따라 합법적 노동운동은 받을 불일 수 없었고, 정부는 노동의 저항이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경우에만 반응을 보였으므로 노동자들은 어떤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노동정책에서 중요한 분기점은 1878-1880년간 활기를 보였던 파업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노동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188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분기점은 1890년대 중엽이었다. 18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정부로서는 대개 공개적인 노동운동 자체가 문제였으나, 189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운동이 격화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까지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노동계급과 혁명운동의 분리가 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짜르 정부의 노동정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적 원인으로서 지배층의 봉건적 심성과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뒤, 일관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노동정책을 초래한 구체적 원인으로서 정부 고위층, 특히 재무성과 내무성의 입장 차이와 갈등 문제를 다룰 것이다. 제2장에서는 정부가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으로서 1861년 농노개혁 이후부터 1890년대 전반까지 노동운동의 발전양상을 살핀 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나온 각종 '징벌적' 조치와 '보호적' 조치로 마련된 공장법과 공장감독관제의 내용과 그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1890년대 후반부터 1905년 혁명 이전까지 노동운동의 격화 및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을 살펴면서 이 기간에 이루어진 공장감독관제의 변질과 정부의 새로운 대응책인 '경찰사회주의'를 분석함으로써 결국 일반적인 노동운동이 어떻게 체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2) 임금 수준, 벌금, 노동시간, 작업 환경, 생활비, 주거 환경 등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간단히 살펴려면 다음을 참조할 것. 이채욱(1997), 466-483쪽.

2. 노동문제를 둘러싼 재무성과 내무성의 입장 차이와 갈등

짜르체제에서 권력의 상층부는 농업적 이해관계의 지배를 받는 귀족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노동정책도 이들의 봉건적 심성이나 세계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05년혁명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노동문제란 없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공장 노동자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고,³⁾ 그들 중 다수가 농민으로서 분여지의 소유자이므로 러시아에는 서구적 의미의 노동계급도, 노동문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 또한 러시아의 경우, 농촌에서처럼 공장에도 가부장제적 관계가 존재하며, 기업주들은 노동자에게 아주 자비롭기 때문에 성문법으로 노사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희망 섞인’ 믿음이었다.⁵⁾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시각인가는 그들 스스로가 특히 1880년대 이래 노동문제에 골치를 썩히고 각종 노동 관련법의 제정에 나선 사실로도 입증된다. 또한 실제로 1861년 개혁 이후 농촌에서도 가부장제적 관계는 쇠퇴하고 있었고, 공장에서는 산업화 초기의 보편적 현상인 극심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보적 형태나마 노동운동의 대두는 당연하였고, 정부는 본의 아니게 노동문제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지배층이나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전제정의 유지, 강화였다. 1861년 농노개혁이나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추진도 따지고 보면 전제정의 보존을 위

3) 제정 러시아에서 노동자는 공장, 광산, 수송, 건설, 부문, 기타 비농업, 농업 부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들 중 어디까지를 노동계급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고, 각 부문별 규모의 추산치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기 전환기에 전체 인구 약 1억 5,000만 명 가운데 공장, 광산, 수송 부문의 자본주의적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281만 명 정도였고 공장 노동자는 170만 명에 불과했다. P. Gatrell(1986) *The Tsarist Economy 1850-1917*, London, B. T. Batsford Ltd., pp. 85-86.

4) I. K. Ozerov(1906) *Politika po rabochemu voprosu v Rossii za poslednie gody*, St. Peterburg, ss. 24-25.

5) J. Walkin(1954) "The Attitude of the Tsarist Government Toward the Labor Problem,"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pp. 165-166.

한 강요된 선택이었다. 산업화의 추진, 즉,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체정, 즉, 半봉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자가당착일 것이나, 어쨌든 러시아 정부는 이 두 가지 모순된 목표 중 어느 한 쪽도 포기하지 못했다. 노동문제에서 전체정의 가장 극적인 표현은 역시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일체의 저항을 불허한다는 태도일 것이며, 이 면에서 정부는 거의 유일하게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발휘했다. 공장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정책의 입안과정에서도 대전제는 역시 집단적 저항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항의조차도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⁶⁾ 그 결과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최악의 노동조건에 수반되기 마련인 각종 불만을 표출할 어떤 합법적인 수단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불법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던 노동운동이 극도의 폭발력을 가지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세기 전환기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비교적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902년에 이 문제에 비교적 밝았던 재무대신 비체(1892-1903년 재임)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산업화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책을 피할 수 있고, 나라의 모든 사회세력을 조화로 이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당파성이나 사적 이익 위에 서있는 단일 의지로 영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쉬울 것이다.”⁷⁾ 과연 전체정은 진정 ‘단일 의지’로 영도되고 있었을까? 1905년 혁명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정부는 그 자체가 수십 만 명의 철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관된 대책도 내놓지 못한 교통성,⁸⁾ 급속한 경제성장인 급선무인 재무성, 치안유지가 최고의 과제인 내무성 등 각 부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6)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서 1902년 재무성은 대신(大臣) 비체의 주도하에 파업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따른 법안은 물론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실도 맺지 못했다. T. H. von Laue(1962) "Tsarist Labor Policy, 1895-1903," *Journal of Modern History*, No. 2, p. 136.

7) T. H. von Laue(1960) "Factory Inspection under the 'Witte System': 1892-1903,"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XIX, No. 3, p. 347.

9) 1885년 철도법은 모든 노선에서 다양한 철도 노동자의 권리, 책임을 일관되게 정하는 철도현장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제는 1900년까지 무시되어 왔고, 그 뒤에도 여러 비효율적인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면서 7년 동안이나 지체되어 왔다. 그 동안 노동정책과 관련된 철도 행정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 Reichman "Tsarist Labor Policy and the Railroads, 1885-1914," *The Russian Review*, Vol. 42, pp. 52-53.

하는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극적인 대립을 보인 부서는 재무성과 내무성이었으며, 각 부서도 내부적 의견대립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짜르정부,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재무성을 자본가의 도구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사가들의 견해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실제로 1880년대 전반에 재무대신 봉계(1881-1886년 재임)는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깊은 동정심을 보이면서 여러 사회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비체도 종종 노동자의 복지 문제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재무성은 급속한 산업화가 최대 관심사인 이상, 기업가들과의 협력,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필요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자의 복지는 상충되는 가치였고 재무성이 이 두 가지 가치 중 궁극적으로 산업화를 우선시했음은 물론이다. 봉계 시절의 사회입법이 비시네그랏스끼(1886-1892년 재임) 시절에 퇴조하거나 비체가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일관적 경로를 갈 수 없었던 것은 모두가 그런 상황의 결과였다.⁹⁾

노동문제에 대한 이런 혼란스러운 견해나 태도는 내무성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공식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문서에 따르면 역대 내무대신이나 고위 간부들 가운데에는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와 동정심을 가진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¹⁰⁾ 그들은 노동현장의 소요사태가 기업주의 가혹한 착취에서 기인함을 파악하고, 흔히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공장법의 제정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나, 심지어 종종 반자본가적 태도를 보인 것 또한 그러한 자세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들의 이러한 태도 밑바닥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제적 신념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가부장제적 신념이란 사실 노동자를 사회의 정당한 일원, 또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半농노로 간주하는 시각과 표리의 관계에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은 일체 용납할 수 없다, 즉 그들에

9) Laue(1962), p. 135. 역대 대신의 스펙트럼.

10) Laue(1962), p. 138. 후술할 판첼레예프(Panteleev) 장군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1) 그 대표적 예로는 1902년 주바토프 조직의 선동으로 일어난 구종 기계공장의 파업을 들 수 있다. Laue(1962), p. 141.

게는 일체의 발언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던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내무성이란 경찰과 동의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감시는 물론이고, 수색, 체포, 파업이나 시위의 무자비한 진압, 사법처리, 행정조치 등 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노동자들에게는 공포, 나아가 증오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무성의 일부 인사가 아무리 노동자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내무성의 노력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내무성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노동자의 복지보다 산업화 추진이 우선이라는 재무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한 내무성이 노동자를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양보조치란 항상 미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도 그러했다.

이러한 각 부서 내부의 장애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재무성과 내무성의 입장 차이, 그리고 노동현장의 관할권을 둘러싼 양 부서의 경쟁과 갈등이었다. 무엇보다도 양 부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의 참상을 완화한다는 이른바 ‘후견’ 원칙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내무성은 노자(勞資)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를 지지했고, 특히 기업의 이윤 중 더 큰 몫을 노동자에게 할애함으로써 노동문제의 완화를 꾀하려 하였다. 반면, 재무성은 1880년대 이래 입법활동을 통해서 노동문제에 대처하려 하였으나, 그 노력은 기껏해야 노동자에게 좀 더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도록 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재무성은 상공국장 꼬발레프스끼의 1897년 4월 8일자 메모 이후 ‘후견’ 원칙을 포기하고 감독관의 경찰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로 기업주의 이익을 대변했다.¹²⁾ 또한 두 부서는 전제정의 유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물론 이견이 없었으나, 권한 문제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재무성은 철도를 포함한 모든 공사(公私)기업을 감독관의 관할 하에 두고, 주지사의 개입을 차단하며, 공장 내 질서에 관련된 감독관과 경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려 하였다. 반면, 내무성은 1880년대 이래 공장감독권 자체를 넘겨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모스크바 지역 노동문제에 관한 재무성과 내무성의 갈등은 이러한 양쪽의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관련된 내무성 문서로는 뎀첼레예프 중장이

12) A. F. Vovchik(1964) *Politika tsarizma po rabochemu voprosu v predrevoliutsionny period (1895-1904)*, L'vov: Izd-vo l'vovskogo universiteta, ss. 64-69.

내무대신 고레미킨(1895-1899년 재임)에게 보낸 1898년 3월 22일자 메모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지역 헌병대에 대한 감사 임무를 맡고 파견되었으나, 이 지역 노동자의 상황이나 파업의 증가 원인에 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의 소요가 주로 낮은 임금과 경영진의 갖가지 악행 때문에 일어났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주의 재원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그는 기업주들을 파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역시 기업의 재원으로 공장경찰을 창설하고 파업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각 공업중심지에 헌병대를 창설하는 한편, 감독관 임무를 내무성으로 이관하고 이 세 부서를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모스크바 경찰국장 뜨레뽀프와 이 지역 비밀경찰 책임자인 주바토프가 함께 작성한 메모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문서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이론의 결합이 전제정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적한 뒤, 지체없이 노동운동 내 혁명가의 토대 자체를 허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 속으로 경찰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¹³⁾

이러한 내무성의 활동은 재무성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당연히 재무성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양 부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1898년 7월 15일 협의회에서는 공장 질서의 전반적 감독은 내무성 산하의 주지사, 공장법 준수, 노사관계는 감독관의 소관으로 한다는 타협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협의회는 노동문제에 관한 두 부서의 이견을 해소하였다기보다는 그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 협의회 이후 내무성은 ‘후견’ 원칙을 더욱 엄격히 고수하였던 것이다.¹⁴⁾ 이 원칙은 1901년 봄 빼제르부르그 대파업의 물결 속에서 마침내 ‘경찰사회주의’로 귀결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짜르 정부는 각 부서의 무원칙과 비일관성, 재무성과 내무성의 소모적인 논쟁과 어정쩡한 타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노동계의 폭발적인 불만을 해소할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말았다. 재무대신 비체는 1903년 봄에 사소한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킨 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의 노동문제는 서구와는 아주 다르다”고 편안히 언급하고 있었다. 또 내무대신 빨레베(1902-1904년 재임)는 “러시아는 서구

13) A. P. Anan'ich(1984) "Politika tsarizma v rabochem voprose," *Krizis samoderzhaviia v Rossii 1895-1917*, Leningrad: Nauka, s. 77-79.

14) Anan'ich(1984), ss. 79-80.

노동문제의 대두에 따른 병적인 현상은 피할 수 있다... 현상황에서 노동문제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더욱 편안하게 말했다.¹⁵⁾ 요컨대, 짜르 정부는 서구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토록 문제의 심각성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3. 19세기 후반 노동운동의 발전과 정부의 대응

러시아 노동계급의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유럽 열강 중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러시아 노동운동이 서구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것이 완전히 불법 상태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으로서, 이는 양면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행동 일체를 범죄시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성장을 가로막는 한편, 거꾸로 노동자들의 불만 해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운동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격한 노동운동, 나아가 혁명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야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효과적인 예방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심각한 쟁의를 겪은 뒤에야 노동자의 요구에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노동자들의 자발적 행동을 질식시킬 조치를 수반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추방, 유형, 징역 등 갖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투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대체로 공개적인 소요나 파업의 형태와 지하 조직활동의 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 전개된 노동운동의 양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공개적인 노동운동의 양상을 일반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파업은 숙련공이 지배적인 금속업과 비숙련공이 지배적인 직물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어떤 일정한 경향도 읽을 수 없는 것이

15) Laue(1962), pp.144-145.

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공개적인 노동운동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의 저항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예컨대 노동운동이 미약하던 1861년부터 1869년까지 9년간 파업은 10회, 소요는 41회에 불과했으나, 이후 15년간 파업은 318회, 소요는 153회로 증가하였다.¹⁶⁾ 둘째, 저항의 형식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즉 1869년까지는 누적된 불만과 분노의 자연발생적 폭발 현상으로서 흔히 폭력을 수반하는 소요(volneniia)가 지배적인 저항 형태였으나, 1870년 이후에는 일정한 목적의식을 수반하면서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전개되는 파업이 지배적인 투쟁 형태로 자리잡았다. 셋째,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업 횟수와 전체 참가자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파업 규모도 커지고 있었다. 1869년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은 대체로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1870년대에는 파업 222건에 파업 참가자 수가 8만 1,600명으로 1건당 평균 참가자 수가 368명이었다. 이어 그 다음 10년간에는 파업 272건에 12만 5,000명이 참가하여 평균 참가자 수 462명을 기록하였다. 또 1890년대 전반의 불과 5년 사이에 그 숫자는 각각 199건, 12만 500명, 605명으로 증가하였다.¹⁷⁾ 넷째, 저항의 이슈도 점차 변화하였다. 초기에 지배적이던 소요의 경우에는 통상 폭력과 파괴를 통해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뿐 이슈의 정식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반면 1870년 이후 지배적 저항 형태로 등장한 파업의 경우에는 임금, 벌금, 노동시간, 대우, 위생조건 등 요구사항의 정식화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파업 운동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16) L. M. Ivanov, et al.(1972) *Rabochii klass i rabochee dvizhenie v Rossii, 1861-1917*, s. 66, 78.

17) Iu. I. Kir'ianov(1989) "Nakanune pervoi revoliutsii epokhi imperializma (1901-1904 gg.)", Iu. I. Kir'ianov et al. 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s. 417, tabl. 22.

표 1: 1870-1894년간 러시아의 파업운동 (단위: 명)¹⁸⁾

| 연도 | 건수 | 참가자 | 연도 | 건수 | 참가자 | 연도 | 건수 | 참가자 |
|------|-----|--------|------|-----|---------|------|-----|---------|
| 1870 | 17 | 1,858 | 1880 | 21 | 15,132 | 1890 | 30 | 11,824 |
| 1871 | 14 | 3,570 | 1881 | 14 | 1,111 | 1891 | 32 | 16,638 |
| 1872 | 21 | 8,193 | 1882 | 18 | 5,224 | 1892 | 58 | 35,818 |
| 1873 | 17 | 4,863 | 1883 | 23 | 9,472 | 1893 | 38 | 30,426 |
| 1874 | 23 | 15,789 | 1884 | 19 | 6,327 | 1894 | 41 | 25,824 |
| 1875 | 15 | 5,578 | 1885 | 32 | 25,761 | | | |
| 1876 | 19 | 1,663 | 1886 | 24 | 6,198 | | | |
| 1877 | 11 | 3,123 | 1887 | 62 | 24,557 | | | |
| 1878 | 38 | 15,341 | 1888 | 29 | 13,901 | | | |
| 1879 | 47 | 21,644 | 1889 | 30 | 18,001 | | | |
| 소계 | 222 | 81,622 | 소계 | 272 | 125,684 | 소계 | 199 | 120,530 |

한편, 단순한 소요나 파업이 아니라 지하 조직활동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주로 숙련공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파업이나 소요가 숙련도와 별로 상관관계 없이 일어난 것과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 투쟁마저 불법인 러시아에서 ‘정치’ 투쟁을 지향하던 그들이 선택할 길은 지하활동뿐이었다. 지하활동의 상황은 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을 부여하였다. 먼저 보안유지가 조직의 생명과 직결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대중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의회제도가 없고 노동자의 모든 행동이 불법화되어 있는 러시아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정부의 대응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었고, 폐쇄적인 조직활동은 당연히 기존 체제의 타도라는 극단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마련이었다. 활동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1875년 3월 오제싸에서 창설된 ‘남부 러시아 노동자 동맹’, 1878년 삐제르부르크에서 창설된 ‘러시아 노동자 북부동맹’이 모두 그러했고,¹⁹⁾ 1880년대에 활동한 일련의 지하조직들은 그러한 특성을 더욱 발

18) 이 도표는 Kir'ianov, "Nakanune pervoi revoliutsii," s. 417, tabl. 22를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19) 1870년대의 대표적인 지하 노동자 조직인 ‘남부동맹’이나 ‘북부동맹’의 강령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N. V. Nelidov ed.(1960) *Nachalo rabochego dvizheniia i rasprostranenie marksizma v Rossii, 1883-94gg. Dokumenty i materialy,*

전시켜 나갔다. 하지만 지하 조직활동은 노동계급의 열악한 상황이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소수의 의식있는 노동자들에 국한된 현상이었다.²⁰⁾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보다는 혁명운동의 차원에서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크게 봐서 '징벌적' 조치와 '예방적' 조치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징벌적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짜르 정부는 농노해방 이후 거의 20년 동안은 '징벌'만을 고려하는 구법(舊法)에 의존해서 노동문제에 대응하였다. 예컨대 1845년 형법은 노동자의 집단 저항을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하여 주모자를 15-20년간의 중노동에 처하고, 단순히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의 경우에도 주동자는 3주에서 3개월, 가담자는 1-3주의 구속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²¹⁾ 1870-80년대에는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형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어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파업 참가자 전원의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선별 처리를 해도 시간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동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노동자들이 결집할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정부는 대체적 징벌 수단인 '행정적 징벌'을 널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바로 현장에서, 장기간의 조사나 기소 없이, 경찰이나 기업주의 권위 훼손 없이, 또 핵심적인 노동자만 선별 처리할 수 있는 등 여러 잇점이 있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행정적 징벌인 추방은 문제가 없던 지역으로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1880년대 초 이전까지 정부는 임금, 노동조건, 노동 규율 등을 전적으로 기업주의 손에 맡긴 채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노동자를 보호할 어떤 대책

Moskva: Gospolitizdat, s. 183-84, 193-96; Iu. Z. Polevoi(1959) *Zarozhdenie marksizma v Rossii, 1883-94 gg.*, Moskva, s. 99-100.

20) 1880년대 혁명조직들의 전반적인 활동과 이념적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채욱(1996) 「1880년대 러시아 혁명운동에 있어서의 이념적 변화」, 『서양사론』, 49호; N. M. Naimark(1883) *Terrorists and Social Democrats.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Under Alexander III*,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D. Offord(1986)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1880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1) G. V. Rimlinger(1960) "Autocracy and the Factory Order in Early Russian Industri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20, No. 1, pp. 69-70.

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기업주의 전횡이 횡행하고 노동 조건은 오랫동안 끔찍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농노제의 붕괴 자체로 이미 '징벌적' 조치만으로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어갔다.²²⁾ 물론 정부는 그 이전에도 공장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폐습을 제거하고자 노력 하기는 하였다. 이를테면 1860년대초에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장의 조건을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²³⁾ 그러나 이들 소 위원회는 사실상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결국 지배층 내의 개혁 의지만으로 노동입법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결국 노자관계에 간여하게 된 것은 1870년대 말, 1880년대 초의 일이었다. 이 시기에 전개된 일련의 파업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잇달아 공장법을 제정하고 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공장감독관제를 신설하는 등 이른바 '보호적 조치'를 통해 노동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초기의 대표적인 노동법으로는 1882년 6월 1일법, 1884년 6월 12일법, 1885년 6월 3일법, 1886년 6월 3일법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은 프랑스나 미국에 앞서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주의 전횡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진보적 측면도 있었다. 예컨대, 1882년법에 따라 12세 미만 어린이의 노동이 금지되었고, 12-15세의 소년 노동은 8시간 이하로 제한 되었으며, 이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공장감독관제가 도입되었다. 1884년법은 기업주가 아동 노동자의 초등교육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이어 1885년법은 17세 이하 소년과 여성의 직물공장 야간 노동을 금지했다.²⁴⁾ 공장 입법의 절 정을 이룬 것은 1884-5년 파업, 특히 1885년 블라지미르州 모로조프 방직공장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정된 1886년 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세부적 임금계약, 계약기간, 사직조건, 해고조건 등 노자관계의 깊은 곳까지 국

22) Iu. I. Kir'ianov, A. M. Solov'eva(1989) "Pravovoe i ekonomicheskoe polozhenie proletariata v 1861-1904gg.," Iu. I. Kir'ianov et al. r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s. 306.

23) 그 대표적인 예로는 파업, 벌금, 명령 위반, 산업재해 보상 등을 심리할 산업법정 제도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한 시카텔베르그(Shkatel'berg)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Kir'ianov i Solov'eva, "Pravovoe i ekonomicheskoe polozhenie," s. 306.

24) 1882년, 1884년, 1885년 법 등 초기 노동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F. C. Giffin(1966) "The Formative Years of the Russian Factory Inspectorate, 1882-1885," *Slavic Review*, vol. 25, no. 4, p. 641.

가가 개입하게 되었고, 이의 관철을 위해 감독관의 활동이 크게 확대되었다.²⁵⁾ 이것이 세기 전환기까지 짜르 정부의 노동 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업주의 전횡을 막는 데 있었을 뿐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신장하는 게 아니었다. 이에 따라 감독관제가 실시되면서 하루 결근에 이틀치 임금을 공제하거나, 퇴직을 원할 때 노동 계약 기간의 만료 1개월 이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1개월치 임금을 차압하는 등 기업주의 지나친 횡포는 제거되었다. 반면 임금수준이나 최저임금의 규정, 각종 사회보장책은 러시아 노동법의 관심 밖에 있던 일이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단을 전혀 가질 수 없었고, 이런 사안의 시정은 감독관의 권한 밖의 일이었다. 이런 경우를 당해 감독관을 면담한 노동자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분노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회사 쪽의 불법 행위에 항의해서 파업을 해도 기업주는 민법 위반으로 약소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노동자는 형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 유형, 추방 등 갖가지 제재를 받게 되어 있듯이 정부의 대책은 결정적으로 기업주의 편이었다.²⁶⁾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 제정과 감독관제 실시만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법이 철저히 적용되지도 않았고, 감독관제는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었다. 이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관성을 잃은 채 표류한 탓이었고, 결국 정부는 노동문제에 전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정부의 노동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낸 것은 정부 안팎의 보수적 여론 때문이기도 했다. 노동자의 불만을 체제 내에서 흡수하려는 노력은 거의 예외없이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것이다. 예컨대, 노동문제에 동정적이던 초대 총감독관 안드레예프는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재무성과의 대립 속에서 취임 몇 개월만에 사퇴하였고, 좀 더 고분고분한 미하일로프스키가 후임자로 선임되었다. 또 공장법의 입법을 주도한 재무대신 봉게는 1886년법이 제정되자, 보수 언론과 기업가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봉게는 정부 안팎의 비난 속에 법 제정 6개월만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노사간의 밀접한 관계 확립을

25) 이 법의 형성 배경이 된 1884-5년의 노동 수요와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각각 참조할 것. F. C. Giffin(1975) "The 'First Russian Labor Code': The Law of June 3, 1886," *Russian History*, No. 2, pp. 85-87, 93-97.

26) Rimlinger(1960a), pp. 82-83.

통해 사회주의와 싸울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결국 정부 내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또한 공장감독관제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철저히 친기업적 입장이었던 비시네그랏스끼가 봉계의 후임자로 취임함으로써 정부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고, 그의 후임인 비제 또한 친기업적 노동정책의 기초를 유지하였다.²⁷⁾

이런 분위기 속에서 봉계의 사임 이후 재무성의 정책은 기업주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쪽으로 잇달아 개악되었다. 물론 1882년법에 따라 취임한 감독관은 3명에 불과했지만 노동조건 개선의 위한 자신의 임무에 열정을 가졌고, 무시 못할 능력도 보유하였다. 또 감독관은 1884년법에 따라 20명으로, 1894년 3월 14일법에 의해 143명으로, 1899년에는 257명으로 증원되었다.²⁸⁾ 그럼에도 러시아의 광대한 국토, 공장이나 노동자의 수, 점검해야 할 다양한 사항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감독관이 제 구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²⁹⁾ 게다가 ‘공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체는 물론 국유 및 사유 철도에 고용된 수십 만명의 노동자들은 감독관의 보호망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분위기 속에서 공장법이 개악되고, 공장감독관제 자체가 변질되어 갔다는 점이다. 예컨대, 1890년 4월 24일에 알렉산드르 3세는 일요일이나 경축일의 연소자 노동,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 노동, 유리공업의 야간 노동, 10-12세 어린이의 노동을 승인하였다. 또 1894년 7월 11일에 재무대신 비제는 연소자 노동 원칙, 공장의 위생 상태, 노동조건 등의 감독을 규정한 1884년법의 지침을 파기하면서 감독관에게 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생산의 기술수준 향상에 관해 조언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더욱이 1895년 4월 11일과 12월 5일자 회람에서 비제는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장 내 불건전한 현상을 추적해 즉시

27) 비난의 핵심적 내용은 이 법이 사회주의적이라는 것, 러시아 현실을 무시한 채 해로운 서구 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것 등이었다. 또 봉계의 입법에 대한 대표적 비판자였던 『모스크바 베도모스찌』(Moskovskie vedomosti)의 까뜨코프는 러시아의 노동자란 돈벌러 나온 농민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아예 노동계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1880년대 중엽에는 비제조차 이런 까뜨코프의 견해를 지지했다. Anan'ich(1984), s. 72.

28) 감독관의 증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Giffin(1975), p. 642; Laue(1962), pp. 353-354.

29) 감독관은 임금, 작업장의 안전 상태, 노동시간 등 일반적인 노동조건 이외에도 목욕탕, 다실(茶室), 식당, 매점, 협동조합 등 작업장 부속 시설의 청결 상태나 가격 문제까지 점검해야 했다. Laue(1962), p. 359.

재무성에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감독관에게 '경찰 기능'까지 추가하였다.³⁰⁾ 결국 노동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정부로부터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었고, 이는 노동운동을 더욱 격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세기 전환기 노동운동의 격화와 '경찰사회주의'의 대두

1895년 이후 10년간 노동운동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였다. 1891/2년 대기근 이후 1897년까지 계속된 호황이 노동계급의 공세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먼저 1895-1900년간에 무엇보다 두드러진 현상은 초기 노동운동의 지배적 형태였던 소요가 격감한 반면, 파업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파업자의 수는 1895년에 처음으로 5만 명을 넘는 이래 1899년까지 8만 명 안팎에 달했으며, 경제위기가 도래한 1900년에야 3만 남짓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1895-1900년간 파업자 수는 40만을 넘었고, 파업 횟수도 1,300여건에 달했다. 둘째, 노동운동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890년대말에 이르러 해마다 몇 차례씩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주는 거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적 편차는 여전히 컸다. 예컨대, 파업의 절반에 가까운 47.6%가 페쩨르부르그, 모스크바, 바르샤바, 블라지미르, 뻬뜨로꼬프스카야, 리플란지야 지역 등 6대 공업지역에 집중된 반면, 북부와 동부에서는 미약했다. 또한 업종별로는 직물업이 1/3이 넘는 37.6%를 차지하고, 기계업, 제련업, 철도 등 중공업 부문이 22.5%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업종들은 파업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셋째, 1,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파업이 꽤 증가하였고, 특히 업종별 연대파업이나 도시 전체의 파업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바르샤바, 빌노, 이바노보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전체 파업자 가운데 연대 파업자의 비율은 가장 낮았던 1900년에도 36%나 되었고, 가장 높았던 1898년에는 76%에 달했다.³¹⁾

30) Anan'ich(1984), s. 74.

31) M. S. Volin, Iu. Z. Polevoi, Iu. I. Kir'ianov(1989) "Rabochii klass Rossii v kontse XIX v. Nachalo proletarskogo etapa osvoboditel'nogo dvizheniia," Iu. I. Kir'ianov et al. r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s. 486-488.

표 2: 1895-1904년간 러시아의 노동운동 (단위: 건)³²⁾

| 연도 | 파업 | 참가자 수 | 거리시위 | 병력동원 |
|------|-------|---------|------|------|
| 1895 | 214 | 55,000 | 1 | 19 |
| 1896 | 172 | 76,500 | 2 | 33 |
| 1897 | 222 | 84,300 | 3 | 35 |
| 1898 | 347 | 75,600 | 4 | 45 |
| 1899 | 257 | 84,500 | 27 | 85 |
| 1900 | 133 | 31,000 | 29 | |
| 1901 | 353 | 85,100 | 51 | |
| 1902 | 285 | 95,600 | 61 | |
| 1903 | 1,382 | 269,700 | 141 | |
| 1904 | 199 | 56,100 | 175 | |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도시와 농촌 공업지역의 노동운동 형태가 극명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집회나 시위는 도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또 도시에서는 파업이 지배적인 형태인 반면, 농촌에서는 방화(放火)가 그러하였다. 1895년에 파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171건과 43건, 1896년에는 126건과 46건, 1897년에는 138건과 84건, 1898년에는 251건과 96건, 1899년에는 173건과 84건, 1900년에는 81건과 52건이 발생하였다.³³⁾ 반면, 주로 직물업이 집중된 중앙공업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방화의 경우, 농촌과의 관계가 훨씬 밀접한 군지역의 발생건수가 도시지역의 그것을 압도하였다. 1895년에 발생건수는 도시와 군지역에서 각각 81건과 670건, 1896년에는 57건과 623건, 1897년에는 109건과 847건, 1898년에는 75건과 580건, 1899년에는 51건과 551건, 1900년에는 71건과 575건이었다.³⁴⁾

파업 이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동자의 집단 행동은 집회와 시위였다. 세기말 6년간 집계된 집회만 해도 196회에 달했다. 이는 집회가 대개 비밀리에 열렸고, 집계된 수치가 경찰에 적발된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가진 집회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종전

32) 이 도표는 다음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Volin, Polevoi, Kir'ianov(1989), s. 487, 505; Kir'ianov(1989), ss. 582-583, 588-589.

33) Volin, Polevoi, Kir'ianov(1989), s. 502, tabl. 25.

34) Volin, Polevoi, Kir'ianov(1989), s. 487.

에 시위는 뻬쨌르부르그의 1876년 까잔광장 시위와 1891년의 셸구노프 장례 시위가 있었을 뿐 거의 찾아볼 수 없던 현상이었다. 하지만 세기말 6년간 거리시위는 1895년에 1회, 1896년에 2회, 1897년 3회, 1898년에 5회, 1899년에 27회, 1900년에 29회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시위는 러시아 지역보다는 주로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로러시아 등 피억압 민족지역에서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다.³⁵⁾ 전체적으로 볼 때 189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몇 차례의 대규모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운동은 아직 미약했다. 공장감독관의 자료에 따를 경우, 파업이 일어난 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에, 파업자의 수는 6만 이하로서 ‘공장’ 노동자의 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 파업은 여전히 대체로 산발적이었고, 요구사항도 20세기초와는 달리 주로 ‘경제적인’ 것들이었다.

1900년에는 경제 위기의 도래로, 1904년에는 러일전쟁의 여파로 노동운동이 위축되기는 하지만 20세기 접어들어서도 노동운동은 1890년대 후반 이래의 발전 양상을 거듭하였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이 추가되었다. 파업건수와 참가자의 수는 1901년에 각각 353건과 8만 5,000명, 1902년에는 285건과 9만 5,000명이었고, 최고조에 이른 1903년에는 1,382건에 27만 명이었다. 이와 함께 시위도 1901년에 51건, 1902년에 61건, 1903년에 141건, 1904년에 175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이한 업종간의 연대파업이 전개된 것도 새로이 등장한 양상이었다. 또 1903년 남부지역 총파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계급의 결집이 뚜렷해지고 있었고,³⁶⁾ 1901년 정부의 전횡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는 등 노학연대(勞學連帶)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자들이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³⁷⁾

1905년 혁명 전 10년간 노동자의 지하활동 또한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노동자 서클이 뻬쨌르부르그를 통틀어 수십 개에 불과했지만 혁명 전야에 이르러 수도의 각 노동자 지구마다 수십 개 서클이 활동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³⁸⁾ 이렇게 이 시기의 서클 활동이 꾸준히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35) Volin, Polevoi, Kir'ianov(1989), ss. 487-490.

36) Kir'ianov(1989), s. 586.

37) Kir'ianov(1989), s. 538.

38) 예컨대, 네바관문 구역에만 약 20개의 비합법 서클과 100-1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Kir'ianov(1989), s. 540.

그래도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식인 중심의 혁명 조직과 노동자의 관계이다. 1880년대에는 ‘노동해방’단의 활동에 힘입어 국내 사민주의 세력이 크게 확대되었고, 인민주의 진영도 마르크스주의의 전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³⁹⁾ 그 결과 1880년대 중엽 이후에는 사민주의나 인민주의 세력 모두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양상은 18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⁴⁰⁾ 하지만 이들 세력이 1890년대 후반에 노동자 서클들에 대해 이념적 영향을 행사하긴 했지만 조직적 통합까지 이룬 것은 아니다. 또 노동자 대중에 대한 선동 활동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련학계에서 흔히 언급하듯이 이 시기 노동운동의 고조가 1895년에 창설된 ‘뻬체르부르크 노동해방 투쟁 동맹’ 등의 선동의 결과가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유인물을 통한 ‘동맹’의 선전, 선동 활동이 일반 노동자들이나 정부 쪽에 거대한 노동자 조직이 존재한다는 오해를 심어주었고,⁴¹⁾ 이것이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정부의 과민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인 듯하다.

세기 전환기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혁명조직들은 점차 정당으로 재편되는 발전상을 보였다. 1900년 전후한 시기에 창설된 러시아사회민주당⁴²⁾, 사회혁명당, 소수민족 지역의 여러 사회주의 정당은⁴³⁾ 한결같이 노동계

39) 이채욱(1996), 266-268쪽.

40) R. Pipes(1963) *Social Democracy and the St. Petersburg Labor Movement, 1885-1897*,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pp. 48-50.

41) Pipes(1963), pp. 95-105.

42) 1898년 3월에 열린 첫 대회에서는 ‘러시아 사회민주당’(RSDRP)이라는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공식 명칭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참가자 8명 전원 이 대회 이틀째 체포됨으로써 사회민주당은 사실상 아무런 조직적 실체도 아닌 셈이었다. 실질적인 러시아 사회민주당 창당대회는 1903년 6월에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당’ 제2차 대회였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레닌派와 마르토프派는 당 조직의 성격, 당원의 자격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결국 레닌派가 당 기관지인 『이스크라』 편집진 3석 중 2석을 차지하자 마르토프派는 이를 ‘다수파(bol'shinstvo)의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대회에서 철수했다. 볼셰비끼나 멘셰비끼라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했으며, 이후 두 세력은 사실상 별개의 정당으로 활동했다. 제1차 대회에 관해서는 Volin, Polevoi, Kir'ianov(1989), ss. 478-480, 제2차 대회에 관해서는 Kir'ianov(1989), ss. 566-571을 참조할 것.

43) 이러한 정당으로는 ‘폴란드왕국 및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SDKPiL), ‘발틱 라트비아 사회민주노동기구’, ‘전국유태인노동동맹’(Bund), ‘폴란드 사회당’(PPS),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 ‘우크라이나 혁명당’(RUP), ‘아르메니아 사회민주기구’ 등이 있었다. Kir'ianov(1989), ss. 525-526.

급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갈망했고, 실제로 노동자 당원을 꾸준히 확보해나갔다. 하지만 경찰의 철저한 감시와 추적 속에서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자 대중은 혁명가들의 주장을 접하거나 제대로 이해할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으며, 더욱이 여전히 짜르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이들의 주장에 귀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결국 혁명정당들은 1905년 이후에야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정부는 노동운동의 격화에 맞서 부분적인 양보와 함께 탄압조치도 강화하였다. 이를테면 1897년 6월 2일법으로 감독관의 관할 범위를 34개 주, 2만 174개 공장, 138만 6,691명의 노동자로 확대하는 한편, 노동시간을 11시간 반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⁴⁴⁾ 하지만 파업이나 시위현장에는 어김없이 경찰,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가차없이 진압하였다. 이렇게 물리력에 의한 탄압 사례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더욱 증가하였다. 예컨대 노동현장에 군대가 동원된 사례는 1890년에 5회에 불과했으나, 1895년에 19회로, 1897년에는 35회로 증가하였고, 1899년에는 85회에 이르렀던 것이다.⁴⁵⁾ 이러한 정부의 무력 개입으로 노동운동은 점차 반정부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주로 사회주의자의 소행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부서간의 의견 대립으로 일관된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했으나, 점차 내무성에서 입안한 이른바 ‘경찰사회주의’로 기울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01년 5월 주바토프가 조직한 ‘모스크바 기계공 상조회’와 1904년 2월 가쁜 신부가 뻬페르부르그에서 창설한 ‘상뜨뻬페르부르그市 러시아 공장 및 제작소 노동자회’였다.⁴⁶⁾

이 조직들의 활동은 전제정의 노동정책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노동계급의 후원자를 자임함으로써 그 운동의 방향을 친정부적으로 이끈다는 생각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을

44) Anan'ich(1984), s. 75-76.

45) Volin, Polevoi, Kir'ianov(1989), s. 505, tabl. 26.

46) ‘경찰사회주의’의 일반적 목적 및 자세한 활동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특히 주바토프의 활동에 관해서는 국내 연구도 있다. 기계형(1991) 「주바토프 운동에 관한 연구」, 『서양사연구』, 12집; A. P. Korelin(1968) "Russkii 'Politicheskii sotsializm' (Zubatovshchina)," *Voprosy istorii*, 10; W. Sablinsky(1976) *The Road to Bloody Sunday. Father Gapon and the St. Petersburg Massacre of 1905*,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G. D. Surh(1981) "Petersburg's First Mass Labor Organization: The Assembly of Russian Workers and Father Gapon(Part I and II)," *Russian Review*, vol. 40, pp. 241-62, 412-41.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여력도, 그럴 의지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관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단결을 위한 합법적 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꺼이 이들 조직에 가담하였다. 게다가 조직 참가자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 자체에 대한 비판까지도 서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 운동이 구체화되자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주바토프는 1901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노동자 일요 정기협의회’(일명 ‘주바토프 의회’)를 열기 시작함으로써 ‘경찰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1902년 2월 14일에 ‘기계생산 노동자 상조회’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상조회’는 며칠 뒤인 2월 19일에 농노제 폐지 4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애국시위를 조직하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모스크바 시장 알렉산드로비치, 모스크바 경찰국장 트레보프 등은 5만 노동자들의 일사분란한 행동에 대단히 만족스러워 했다. 이 행사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열광했지만, 며칠만에 내무대신 시빠긴이나 언론총국의 長 샤호프스키는 ‘새로운 노동계급의 출현’, ‘근로대중의 사회의식 각성’ 등을 주제로 하는 언론 캠페인을 중단시키라고 각 주지사에게 지시하였다. 정부에서 조직한 시위가 내무성에조차 동요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어 3월 9일에 열린 노동정책에 관한 각료협의회에서 재무성은 주바토프의 실험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이에 관해서는 내무성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⁴⁷⁾

하지만 1902년 4월초에 내무대신으로 취임한 블레베는 주바토프 운동을 공공연하게 승인하였고, 주바토프는 그의 비호 아래 자신의 실험을 계속하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창설된 ‘유대인 독립노동자당’은 빌노에서, 그리고 오데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⁴⁸⁾ 하지만 1903년 7월 오데사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나고 ‘유대인 독립노동자당’ 당원마저 경제투쟁의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세우자 블레베는 주바토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연말에 주바토프는 경찰 핵심부에서 밀려났다.⁴⁹⁾ 1903년 여름 러시아 남부의 대

47) Anan'ich(1984), ss. 83-85.

48) ‘유대인 독립노동당’(Evreiskaia nezavisimaia rabochaia partiia)은 유대인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회민주주의 조직인 분트(Bund)의 대항 조직으로서 창설되었다. Kir'ianov(1989), s. 533.

49) 주바토프나 그의 계보에 속하는 경찰 간부들에 대해 블레베는 신임, 불신임, 재신임 등

파업을 계기로 경찰사회주의로는 성장하는 노동운동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고,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힘입어 또다시 경찰사회주의의 일환으로 빼제르부르그에 등장한 가쁜회는 주바토프 조직의 문제점을 극적으로 드러냈다.⁵⁰⁾ 가쁜회는 어용 조직조차 반정부적 색채를 띠면서 노동자들의 결집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끝에, 결국 ‘피의 일요일’ 사건의 직접적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⁵¹⁾

5. 결론

1861년 농노개혁 이후 짜르 정부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의미하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도, 전제정 체제, 즉, 半봉건적인 기존 질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대전제상의 모순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러시아의 지배층이나 정부 고위층은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노동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서구와 같은 노동문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노동자를 이전의 ‘농노’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정부는 노동자를 사회의 정상적인 성원, 곧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이는 바로 노동자의 발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노동정책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부 내 노동 관련 주무부서인 내무성과 재무성 내부의 일관성 없는 입장과 행동, 또 노동문제의 관할권을 둘러싼 양 부서의 갈등이었다. 1870년대말 이래 노동운동은 꾸준히 발전하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빨레베가 노동 소요나 혁명 세력의 노동계 침투에 대한 이렇다 할 일관된 방침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1902-3년간 그의 행동 경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Anan'ich(1984), s. 87.

50) 가쁜회의 창설과 조직의 성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Sablinsky(1976), pp. 85-118; Rybakov(1968b), p. 119.

51) 뿌절로프 제작소의 파업 사태와 그것의 빼제르부르그 총파업으로의 발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N. N. Iakovlev(1965) *Narod i partiia v pervoi russkoi revoliutsii*, Moskva: Nauka, ss. 43-44; V. I. Bovykin et al. red.(1981) *Rabochii klass v pervoi rossiiskoi revoliutsii 1905-1907gg.*, Moskva: Nauka, ss. 80-81; Sablinsky(1976), pp143-171.

고 격화되어 갔지만, 재무성은 1880년대에 자신들이 주도하여 제정한 노동 관련법의 노동자 보호 조항을 오히려 무력화하는 ‘용기’를 보였다. 내무성은 노동조건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노동의 저항에 대해서는 군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격화 내지 반체제적 성격을 크게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엄청난 잠재적 폭발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는 업종, 지역, 숙련도에 관계없이 러시아의 노동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경험의 결과였을 뿐, 지하 혁명조직들의 선전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들은 참여자가 극소수 숙련공에 그쳤고, 또한 경찰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시와 탄압 때문에 공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국의 비상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경찰사회주의’의 실험으로 이어졌다.

합법적 활동 공간을 갈망하던 노동자들은 모스크바 등지에서 결성된 주바또프 조직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결집하였고, 체제순응적인 노동운동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반정부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뻬쩨르부르그에서 다시 시도된 ‘경찰사회주의’ 조직인 가쁜회 역시 노동자들의 대대적 결집을 야기하고, 결국 비극적인 ‘피의 일요일’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러시아의 비극은 어느 학자의 표현대로 노동계급의 ‘항구적 배제’의 산물이었다.⁵²⁾ 돌이켜보건대, 유럽 열강 중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해서도 이를 그토록 깨닫지 못하고 안이한 대응책으로 일관했던 러시아 정부의 인식 수준에 놀라울 뿐이다.

52) T. McDaniel(1988) *Autocracy, Capitalism, and Revolution in Russ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 161.

참고문헌

- 기계형(1991) 「주바또프운동에 관한 연구: 모스크바 기계공상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12집.
- 이채욱(1991) 「1905-7년 러시아혁명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서양사연구』, 12집.
- _____(1996) 「1880년대 러시아 혁명운동에 있어서의 이념적 변화. ‘노동해방’ 단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49호.
- _____(1997)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산업화와 ‘혁명적’ 노동계급의 형성」, 안병직 외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까치, 429-516쪽.
- Anan'ich, B. V.(1984) "Politika tsarizma v rabochem voprose," V. S. Diakin ed., *Krizis samoderzhaviia v Rossii, 1895-1917*, Leningrad: Nauka, ss. 70-92.
- Bonnell, V. E.(1981) "Urban Working Class Life in Early Twentieth Century Russia: Some Problems and Patterns," *Russian History*, 8:3, pp. 360-78.
- Bonnell, V. E.(1983a) *Roots of Rebellion. Workers' Politics and Organizations in St. Petersburg and Moscow, 1900-191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nnell, V. E. ed.(1983b) *The Russian Worker. Life and Labor under the Tsarist Regi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vykin, V. I. et al. red.(1981) *Rabochii klass v pervoi rossiiskoi revoliutsii 1905-1907 gg.*, Moskva: Nauka.
- Gatrell, P.(1986) *The Tsarist Economy 1850-1917*, London: B. T. Batsford Ltd.
- Giffin, F. C.(1966) "The Formative Years of the Russian Factory Inspectorate, 1882-1885," *Slavic Review*, 25:4, pp. 641-650.
- Giffin, F. C.(1975) "The 'First Russian Labor Code': The Law of June 3, 1886," *Russian History*, 2, pp. 83-100.
- Glickman, R. L.(1984) *Russian Factory Women. Workplace and Society*,

- 1880-1914,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akovlev, N. N.(1965) *Narod i partiia v pervoi russkoi revoliutsii*, Moskva: Nauka.
- Ivanov, L. M. et al.(1972) *Istoriia rabocheho klassa Rossii 1861-1900 gg.*, Moskva: Nauka.
- Johnson, R. E.(1979) *Peasant and Proletarian. The Working Class of Moscow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eicester University Press.
- Kir'ianov, Iu. I.(1989) "Nakanune pervoi revoliutsii epokhi imperializma (1901-1904 gg.)," Iu. I. Kir'ianov et al. 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ss. 521-631.
- Kir'ianov, Iu. I. and Solov'eva, A. M.(1989) "Pravovoe i ekonomicheskoe polozhenie proletariata v 1861-1904 gg.," Iu. I. Kir'ianov et al. 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pp. 304-361.
- Korelin, A. P.(1968) "Russkii 'Politseiskii sotsializm'(Zubatovshchina)," *Voprosy istorii*, 10.
- McDaniel, T.(1988) *Autocracy, Capitalizm and Revolution in Russ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Naimark, N. M.(1983) *Terrorists and Socail Democrats.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Under Alexander III*, Cambridge, Mass.: Havard Univ. Press.
- Nelidov, N. V. ed.(1960) *Nachalo robocheho dvizheniia i rasprostranenie marksizma v Rossii, 1883-1894 gg.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Gospolitizdat.
- Offord, D.(1986)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1880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Ozerov, I. K.(1906) *Politika po rabochemu voprosu v Rossii za poslednie gody*, St. Peterburg.
- Pipes, R.(1963) *Social Democracy and the St. Petersburg Labor Movement, 1885-1897*,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Polevoi, Iu. Z.(1959), *Zarozhdenie marksizma v Rossii, 1883-1894 gg.*, Moskva.

- Read, C.(1989) "Labour and Socialism in Tsarist Russia," D. Geary ed., *Labour and Socialist Movement in Europe before 1914*, Oxford; New York; Munich, pp. 137-181.
- Reichman, H.(1983) "Tsarist Labor Policy and the Railroads, 1885-1914," *Russian Review*, 42, pp. 51-72.
- Rimlinger, G. V.(1960a) "Autocracy and the Factory Order in Early Russian Industri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0:1, pp. 67-92.
- Rimlinger, G. V.(1960b) "The Management of Labor Protest in Tsarist Russia: 1870-1905,"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5:2, pp. 226-248.
- Sablinsky, W.(1976) *The Road to Bloody Sunday. Father Gapon and the St. Petersburg Massacre of 1905*,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Sokolov, O. D. and Trofimov, A. S.(1989) "Proletariat, ego razvitie i bor'ba na raznochinskom, burzhuazno-demokraticheskom etape osvoboditel'nogo dvizheniia," Iu. I. Kir'ianov et al. 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ss. 362-439.
- Solov'eva, A. M.(1989) "Rost chislennoti proletariata i izmeniia v ego sostave. Konsolidatsiia rabocheho klassa (1861-1904 gg.)," Iu. I. Kir'ianov et al. 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ss. 217-303.
- Surh, G. D.(1981a) "Petersburg's First Mass Labor Organization: The Assembly of Russian Workers and Father Gapon (Part I)," *Russian Review*, 40, pp. 241-262.
- Surh, G. D.(1981b) "Petersburg's First Mass Labor Organization: The Assembly of Russian Workers and Father Gapon (Part II)," *Russian Review*, 40, pp. 412-441.
- Volin, M. S., Polevoi, Iu. Z., and Kir'ianov, Iu. I.(1989) "Rabochii klass Rossii v kontse XIX v. Nachalo proletarskogo etapa osvoboditel'nogo dvizheniia," Iu. I. Kir'ianov et al. ed., *Rabochii klass Rossii ot zarozhdeniia do nachala XX v.*, Moskva: Nauka, ss. 440-520.
- Von Laue, T. H.(1960) "Factory Inspection under the 'Witte System': 1892-1903," *American Slavic & East European Review*, 19:3, pp.

347-362.

Von Laue, T. H.(1962) "Tsarist Labor Policy, 1895-1903", *Journal of Modern History*, 2, pp. 135-45.

Von Laue, T. H.(1964) "Russian Labor between Field and Factory 1892-1903," *California Slavic Studies*, 3, pp. 33-65.

Von Laue, T. H.(1969) *Sergei Witte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Russia*, New York: Atheneum.

Vovchik, A. F.(1964) *Politika tsarizma po rabochemu voprosu v predrevoliutsionnyi period (1895-1904 gg)*, L'vov: Izdatel'stvo l'vovskogo universiteta.

Walkin, J.(1954) "The Attitude of the Tsarist Government toward the Labor Problem,"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2, pp. 163-84.

Zelnik, R.(1970) "Russian Workers and the Revolutionary Movement," *Journal of Social History*, 6:2, pp. 214-237.

Abstract**Tsarist Labor Policy, 1881-1904****Yi, Chae-Uk**

Russia experienced a revolution just forty five years after the Reforms in 1861, and the collapse of tsarist regime itself and the advent of the first socialist regime in a dozen of years after that. The working clas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process. It is very surprising for the Russian workers to get a revolutionary class consciousness in so short a time. Many scholars have made efforts to clear up its causes, but there were few who definitely stressed the tsarist labor polic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veal the close relation between the tsarist labor policy and the class formation of Russian workers.


The tsarist government pursued two contradictory goals; a rapid industrialization which means a capitalist development on the one hand, and a consolidation of the tsarist regime which was pseudo-feudalist in character on the other. Such a contradiction was wholly reflected on the labor policy. The ruling class in Russia never acknowledged the emergence of the working class as a new social force. The attitude seemed to be based on their view of the workers as 'serfs'. In effect, they had neither acknowledged them as a partner to talk with, nor allowed them the right to speak for themselves until they were compelled to do so in 1905.

What made the situation worse was the rivalry within government itself, that is, between the ministries which were in charge of labor affairs, especially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Both were incompetent and inconsistent in their attitude and activities concerning labor problems. The ministry of finance took the initiative in preparing a series of factory laws in the 1880s, but was "brave" enough to make them ineffective later in 1890s. In effect, it could not help but give

priority to the interest of capitalis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chief figures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who had a deep sympathy with the cause of the workers. But none of them allowed any resistance from the labor side and they did not hesitate to suppress any activity of workers at all costs.

In such a situation the Russian workers could not find any means to get rid of their griefs that their discontent continued to get an enormous potential of explosion. This had little to do with the under-ground activities of 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s. But they drew special attention from the authorities and the concern resulted in a series of experiments of so-called "police socialism" which aimed at docile and pro-governmental labor movements. But the result was quite the opposite. The workers massively gathered around the zubatov organizations as these were the only grounds in which they could unite and ventilate their griefs lawfully. It did not take so long before they got into a fatal clash with the government. In the final analysis Russian tragedy was a result of government's callousness to the labor problems and permanent exclusion of the working class.

논문심사일정

| | | |
|---|--------|---------------------------|
|  | 논문투고일: | 2005. 3. 10 |
| | 논문심사일: | 2005. 3. 25 ~ 2005. 4. 15 |
| | 심사완료일: | 2005. 4. 20 |